

제2장 정치인의 꿈과 좌절

동석기는 1899년 19세(만 18세) 때인 어느 날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게 된다.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무작정(無酌定) 세월만 보내면서 썩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한양(漢陽)으로 올라가서 반드시 정치인으로 성공한 후에 금의환향(錦衣還鄉)하고 말 것이다.”

동석기는 한양으로 갈 경비를 만들면서 “자신의 야망(野望)을 실현한 후에 다시 갓으면 된다.”라는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웠다. 그리고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 잡히고 마을에서 돈을 빌려 가족들도 모르게 한양으로 무단가출(無斷家出)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부터(1881년, 고종 18년)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한양으로 무단가출할 당시까지(1899년, 고종 26년) 조선(朝鮮)은 수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변화의 거센 바람은 개혁(改革)과 개화(開化)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의 중대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

첫째는 갑신정변(甲申政變) 혹은 갑신혁명(甲申革命)으로 1884년(고종 21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발생

하였다. 이 정변은 개화당(開化黨)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그리고 홍영식(洪英植) 등이 청(淸)나라에 의존하여 청나라의 간섭을 받는 명성황후(明成皇后, 민비)를 중심으로 한 민씨(閔氏) 척족정권(戚族政權)인 수구당(守舊黨)을 몰아내고, 개화 정권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정변을 말한다.

이 정변은, 먼저 친일(親日) 성향의 개화당이 일본의 후원을 등에 업고 청나라의 속방화정책(屬邦化政策)에 저항하여 일으켰던 정변이다. 속방화정책이란, 청나라가 3,000여 명의 군대를 한양에 주둔시켜 위기에 빠진 명성황후 정권을 다시 세운 후 조선을 종속국(從屬國)으로 삼으려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조선 말에 체신 사무를 맡아보던 우정국(郵政局)의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켰던 정변이다.

개화당은 정변에 성공하자 군사권, 재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청나라와의 종속(從屬)관계 청산, 문벌(門閥) 폐지, 탐관오리(貪官汚吏) 처벌, 그리고 경찰제도(警察制度)의 시행 등을 내세워 개화와 정치개혁을 단행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힘을 빌려 청나라를 배제하려다가 오히려 청나라를 분노케 했으며, 정국을 혼란으로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1894년 6월부터 1895년 4월 사이에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청나라가 승리하고 일본이 패하므로 개화당은 설 곳을 잃어버렸다. 이때 개화당의 주요 인물들이 대거 일본으로 망명(亡命)하므로 그들이 잡았던 정권은 ‘삼일천하(三日天下)’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기에 개화당이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수구당에 대항하여 일으켰던 정변은 실패했던 정치투쟁이라고도 일컫는다. [『조선왕조실록』(고종 21년, 1884.10.17.), ‘민영익이 우정국 낙성식에서 피습되고 김옥균 등이 일본 공사에게 원조를 청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갑신정변.]

둘째는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이다. 이 혁명은 1894년(고종 31년) 전라도(全羅道) 고부군수(古阜郡守)인 조병갑(趙秉甲)이 농민들에게서 거둬들인 부당한 노동력 착취(搾取)와 과중한 세금 때문에 일어났다. 즉 1892년(고종 29년) 조병갑은 농민들을 동원하여 만석보(萬石湫)를 축조하면서 임금(賃金)을 주지 않았다. 또 만석보의 수세(水稅)를 비롯하여 자기 아버지 비석(碑石)을 만드는 비용이라는 명목 등을 내세워 온갖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등 착취를 계속하였다.

이때 조병갑의 지나친 횡포에 분개한 농민들이 전봉준(全琫準)을 지도자로 삼고 민란(民亂)을 일으켰다. 1894년 1월 10일 쟁기와 낫 등 농기구로 무장한 수천명의 농민이 봉기(蜂起)하자 다급해진 조선 정부의 간

곡한 설득으로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수습을 위해 조정에서 파견된 안핵사(按覈使) 이용태(李容泰)가 고부의 농민봉기를 ‘동학교도(東學敎徒)가 일으킨 반란(叛亂)’으로 규정하고 강경책(强硬策)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용태는 동학교도와는 무관한 전라도, 충청도 지방의 농민들까지 동학교도로 몰아 반역죄로 처벌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분노한 농민 지도자 전봉준, 김개남(金開南), 그리고 손화중(孫華中) 등이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모아 봉기하므로 동학에 기초를 둔 농민혁명으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이 농민봉기를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 동학혁명(東學革命), 동학농민전쟁(東學農民戰爭), 그리고 동학농민항쟁(東學農民抗爭)’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농민들이 쫓겨(蹶起)하여 부정과 외세(外勢)에 항거하였기 때문에 갑오농민운동 혹은 갑오농민전쟁으로 일컫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고종 31년, 1894.2.26.), ‘전라도 관찰사와 안핵사에게 고부의 난민을 효유하도록 명하다’; 『한국근현대사사전』, 동학농민혁명]

셋째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수립이다. 1895년 10월 8일 일본인에 의해 명성황후가 처참하게 시해(弑害)되었다. 이어 11월 15일 친일 내각에 의해 상투 풍속을 없애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하는 단발령(斷髮令)

이 공포되었다. 이로 인해 반일 감정이 고조(高調)되어 전국적으로 의병봉기(義兵蜂起)가 일어나는 등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다. 이때 친미파(pro-American)와 친러파(pro-Russians) 세력은 이 혼란을 빌미로 고종의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아관파천(俄館播遷)을 감행했다.

아관파천이란, 1896년 2월 11일 오전 7:30에 고종과 왕세자를 궁녀로 변장시킨 후 궁녀가 타고 다니는 가마 두 대에 태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킨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정국은 독립협회(獨立協會)와 백성들의 환궁(還宮) 요구가 거세지는 등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이에 고종은 2월 20일 경운궁(慶運宮, 덕수궁(德壽宮)의 옛 이름)으로 환궁하였다. 그러자 독립협회는 일부 수구파(守舊派)와 연합하여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하고 나섰다.

칭제건원이란, 우리나라의 왕이 중국처럼 황제(皇帝)라고 일컫고, 중국의 연호(年號)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협회에 의해 칭제건원이 추진되자 왕실 관료들과 향촌 선비들이 3일 동안 하루 4시간씩 대궐(大闕)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요청하는 상소(上疏)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묵묵부답(默默不答)의 자세를 취하던 고종은 상소가 9번이나 올라오자, 이들의 요청

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드디어 고종은 1897년 8월 16일부터 연호로 광무(光武)를 채택하였고, 왕세자를 데리고 9월 17일 환구단(圜丘壇)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환구단은, 현 서울 중구 소공로 106, 대한문 건너편 남별 궁터, 1913년 일제가 허물고 소공동 호텔을 건축했다.] 그리고 10월 12일 국호를 대한(大韓)이라 칭하고서 고종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므로 조선이 대한제국(Empire of Korea)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조선왕조실록』(고종 34년, 1897.10.13.), ‘국호를 대한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선포하다’; 『한국사개념사전』, 대한제국.]

동석기가 무단가출할 당시 대한제국의 조정(朝廷)은 매관매직(賣官賣職) 등 부패가 만연하여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極度)의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수령(守令, 군수), 방백(方伯, 도지사) 중에 무려 2/3 정도가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관리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인 고종도 매관매직에 가담하였는데, 자리가 바뀔 때마다 그 대가를 받을 정도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조정이었으며 국가였다.

이러한 지경이었기에 동석기도 돈으로 관리를 매수(買收)하여 어렵게 ‘광제원(廣濟院) 사무위원’(事務委員)이라는 관직(官職)을 얻을 수 있었다. 광제원은

1899년 4월 24일 ‘칙령 제14호’[『조선왕조실록』]에 의하여 설립된 ‘내부병원(內部病院)’을 말하며, 1900년 7월 ‘칙령 제24호’[『조선왕조실록』]에 따라 광제원으로 개칭되었다. 광제원은 내부 직할로 처음에는 가난한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대한제국의 빈민구제(貧民救濟) 의료기관(醫療機關)으로 일종의 국립병원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제원; 『두산백과사전』, 광제원.]

광제원은 외래(外來) 중심 병원으로 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를 찾아가서 진찰하는 왕진(往診)을 주로 하였고, 최수 진료(診療)도 담당하였기에 별도로 입원실을 마련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전염병(傳染病) 즉 ‘악질(惡疾, the horrible disease, 돌림병)’이 발생하자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병원(避病院)을 별도로 세워 운영하였다. 여기서 악질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육체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 혹은 페스트(pest) 즉 흑사병(黑死病)과 콜레라 같은 죽음을 불러오는 전염병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피병원은 ‘악질’이 환자들 외에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자연경관(自然景觀)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은 피해서 세웠다. 또한, 사람이 사는 마을이나 주택이 있는 곳에서는 50보(90m) 정도 떨어진 외딴곳에 병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병실은 1인 1실의 상등 실, 2~3인 1실의 중등 실과 무의무탁(無依

無托) 환자들을 위한 하등 실 등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었다. 각 병실의 입원료는 등급에 따라 달랐으며, 하등 실은 무료였다.

악질 전염병으로 알려진 호열자인 ‘콜레라(cholera)’로 인하여 조선 정부는 1885년 7월 ‘호열자(虎列刺) 예방규칙, 호열자 소독규칙, 호열자 예방과 소독집행규칙’ 등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1889년 초부터 콜레라는 조선 전역에 건잡을 수 없이 퍼져 전국적으로 7,000명이 죽어갔으며, 한양에서만 매일 200~300명이 죽어 나갈 정도로 전 국민에게 죽음의 사자처럼 느껴졌다. 이에 당황한 대한제국 정부는 콜레라에 대한 방역사업을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콜레라 방역사업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광제원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이꽃매.황상익(1997), 「우리나라 근대병원에서의 간호」, 『의사학』 제6권 제1호, 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콜레라.]

이때 동석기는 돈으로 관리를 매수하여 임시 방역위원(防疫委員)으로 근무하다가 1902년 10월 28일(화) ‘광제원 사무위원’이라는 관직을 정식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 『내부래문(內部來文)』 24, ‘광제원 사무위원, 임명 건 관보 개제 요망’] 그런데 동석기에게 관직을 알선해준 그 관리는 주기적으로 뇌물(賂物)을 상납(上納)하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하였다. 그러나 당

시 동석기의 처지가 그 관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이를 간파한 그 관리는 동석기에게 상납실적이 저조(低調)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기 시작하였다. 지나칠 정도로 동석기를 괴롭히면서 스스로 그만두도록 압력을 행사하므로 결국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자신이 빌려 온 돈을 부모들이 갚기 위해서 농토를 처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듣게 된다.

당시 동석기의 처지는 관직에서 쫓겨났기에 한양에 머무를 수도 없었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농토마저 자기 자신 때문에 팔리므로 남의 소유가 되었기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결국,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지만 뾰족한 방법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는 이 일에 대하여 훗날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정치인이 되려는 큰 야망을 품고 한양에 왔다. 그러한 야망으로 나는 정부 요직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내가 왕의 친척들과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그리고 나라의 저명(著名)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19세였을 때 정부의 첫 번째 관직을 맡았다. 그때까지

내 아버지는 아들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논·밭을 팔아야만 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갚고 아들이 아버지의 빚을 갚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습(慣習)이었다. 그 때부터 내 아버지가 논·밭을 팔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돈을 더 빌려주지 않았다.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관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한양에 머무를 수도 없었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6.]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